

연구논문

조선왕실 태실 석물의 형성과 전개

전나나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미술사학 전공

jeon.nana@gmail.com

- I. 머리말
 - II. 조선 가봉 태실의 형성
 - III. 조선 태실 석물의 전개
 -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에서 새로 즉위한 왕은 선왕의 국장(國葬)을 마무리한 후에 선왕을 선양하기 위하여 그 치적을 실록(實錄)으로 엮고, 존호(尊號)를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은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태실을 치장했고, 선왕을 위하여 태실에 석물을 두르는 가봉(加封)을 진행했다. 이처럼 석물로 가봉한 태실은 왕으로 재위했거나 추존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실과 구분된다.

조선왕실에서 태어난 아기의 태(胎)는 항아리에 넣어 궁 안팎이나 풍수적 길지에 묻어 둔다. 그리고 왕으로 즉위하거나 추존된 경우에 태실에 석물을 두르는 가봉을 진행했다. 추존된 왕은 종묘에 부모(祔廟)되고, 그 무덤이 능(陵)으로 새롭게 조성되기도 했으며, 태실이 가봉하기도 하며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다만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사대조(四代祖)는 왕으로 추존되었지만 태실이 남아 있지 않아 가봉 태실이 없고, 방계(傍系)에서 비롯된 철종이나 고종은 태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봉 태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왕의 태실을 치장하거나 후손의 태실을 꾸며서 왕실의 위엄을 갖추었다.

태실에 석물을 설치하는 가봉 태실은 경상도와 전라도, 강원도 및 경기도에 주로 분포하며 산 정상에 위치한다. 태실 지하에는 석함인 용석(甕石)이 있으며, 용석 안에는 또 태항아리를 두고 그 안에 동전, 솜 등을 담아 끈으로 봉했다.

태실의 산세를 그린 왕실 태봉도(胎峯圖)에는 귀부와 이수(龍首)가 있는 비석 및 난간석이 존재하는 태실을 세부적으로 그려 현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

※ 이 글은 2024년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에서 공동 주관한 가봉태실 국제학술대회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비교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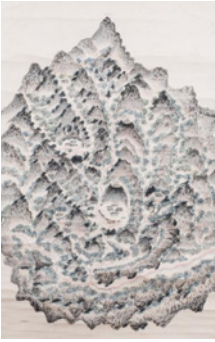


그림1-《장조 태봉도》, 1785년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그림2-『정종대왕 태실 석난간조배의궤』 도설, 180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3-《호남지도(태조 태실 세부)》, 18세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1). 그리고 왕실에서 장태(藏胎)를 하거나 태실의 석물을 수리하고 추가하는 경우에 의궤를 남겨 당시의 조성 과정을 상세하게 추적할 수 있다(그림2). 또한 지도에 그려진 태실을 통해서 조선왕실 태실 형태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지방도(地方圖)에 그려진 태실의 모습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태실 형태를 어떠한 모습으로 파악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형상이 비석과 승탑처럼 묘사되어 있다(그림3). 이는 조선 후기에 가봉 태실의 주요한 구성 요소를 비석(碑石)과 난간석(欄干石) 및 개침석(蓋簷石) 등의 석물로 인식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현재까지 태실에 관한 연구는 태실이 각 지역의 길지에 설치되면서 논의되었던 풍수학,¹ 고고학² 연구가 많다. 또한 개별 왕과 관련된 태실의 조성 과

-
- 1 박대윤·천인호, 「조선 성종 태봉의 풍수지리적 특징 비교」, 『한국학연구』 33(2010); 박대윤, 「朝鮮時代 國王胎峰의 風水의 特性 研究」, 『한국문화』 59(2012); 김두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풍수」, 『영남학』 28(2015); 민병삼, 「태실의 풍수적 생명사상 연구」, 『영남학』 31(2016).
 - 2 심현용, 「조선 단종의 가봉태실에 대한 문헌·고고학적 검토」,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45-3(2012); 홍성익, 「조선시대 태실의 역사고고학적 연구」, 『영남학』 28(2015).

정을 다룬 연구가 있었다.³ 그 밖에도 태항아리가 서삼릉으로 옮겨진 후 국립 고궁박물관으로 이관된 태항아리에 대한 도자사 연구,⁴ 태실도에 대한 회화사적 고찰⁵ 등이 있었다. 한편 가봉된 태실 석물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양식적 변화를 충분히 다루어 지지 않았고, 특히 왕실에서 제작한 능묘 석물과 본격적으로 비교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왕과 추존 왕의 가봉 태실이 완형으로 남아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석물의 양식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석물의 구성과 특징을 현재와 비교하여 조선왕실에서 가봉된 태실을 만들 때 주안을 두었던 점에 관해 파악해 보고,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태실의 변화를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조선 왕실에서 제작한 조선왕릉의 석물을 비롯하여 동시대의 능묘 석물과 비교하여 조선의 가봉 태실 석물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로써 가봉된 조선 태실이 능에서 제작된 석물과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
- 3 윤석인, 「조선 정조대왕 태실 연구: 태실석물의 구조와 봉안유물의 특징」,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46-1(2013); 김해영, 「영조조 세종, 단종 태실의 수개 역사」, 『남명학연구』 44(2014); 심현용, 「성주 선석산 태실의 조성과 태실구조의 특징」, 『영남학』 28(2015); 김지영, 「18세기 후반 정조대 ‘元子’의 탄생과 胎室의 조성」, 『장서각』 35(2016); 유기원·김기주, 「조선 태조대왕 태실의 형식과 특성」, 『건축역사연구』 26-6(2017); 최명진, 「조선후기 국왕 가봉 태실의 민간 수호 연구: 공주 숙종 태실과 태봉동 문서를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37(2024).
 - 4 윤용이, 「朝鮮時代 白瓷 胎항아리의 成立과 變遷」, 『동악미술사학』 1(2000); 안세진, 「세종대(1418~1450)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출토 <분청사기 상감연판문 반구형뚜껑>의 제작 특징과 제작지 고찰」,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54-4(2021).
 - 5 윤진영, 「조선후기 태봉도의 사례와 도상의 특징」, 『영남학』 28(2015).

II. 조선 가봉 태실의 형성

태아의 보호막이자 태아와 어머니를 이어 주는 포태(胞胎)는 곧 ‘삼’과 같은 의미다. 이를 관장하는 삼신(三神)은 포태신으로 아이를 보호하며, 아이를 수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아이 생육의 수호신이기도 하다.⁶ 그리고 태의 관리가 아이의 생명 및 성장과 관련 있다고 여겨졌다. 민가(民家)에서 태처리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로 아기가 태어난 곳에서 먼 지역에서 태를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혹은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왕실에서 왕자와 왕녀의 태는 일반적으로 항아리에 보관하여 일정한 지역에 묻는 형태였다. 왕실의 태처리 방식은 중국의 예전(禮典)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조선 전기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봉번(奉審)’ 조에서 관찰사가 왕비와 왕세자의 태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정했음을 뿐이다.⁷

이후 조선 후기 왕실의 태실, 특히 가봉 태실에 대한 주요 기록은 태실의 규모와 수호군 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도 체계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조선왕실에서 태실을 조성하고 가봉하는 절차가 보편화되면서 예조에서 편찬한 『춘관통고(春官通考)』에 각 가봉 태실의 위치와 숙종 대부터 영조 대까지 태실의 주요 수리 내역을 정리했다.

1462년(세조 8)에 『세조실록』⁸과 최항(崔恒)의 문집인 『태허정집(太虛亭集)』

6 최남선, 『조선상식: 풍속편』(서울: 동명사, 1949), 43쪽

7 『經國大典』 「禮典」, ‘奉審’, “寢廟山陵壇墓 每歲本曹 同提調奉審啓聞 外則觀察使并審大殿王妃 王世子胎室宗廟各室王后考妣墓”.

8 『世祖實錄』 8년(1462) 9월 5일.

에 수록된 「세조대왕 태봉 가봉비문(世祖大王胎封加封碑文)」⁹에 따르면, 왕실 태실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이 시기에 왕실에서 태실 위치를 정할 때 점(占)을 쳤다는 점이고, 둘째로 세조 태실을 가봉할 때 대신 들은 다른 대군의 태실과 함께 있으니 옛 규범에 따라 옮기는 것을 요청했지만 세조의 뜻에 따라 옮기지 않은 채 작은 비석만 세웠다는 점이며, 셋째로 왕실 태실의 관리와 보존을 통하여 자손의 번영과 나라의 영원함을 기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세워진 조선왕실 태실은 조선왕릉의 조성 방법 및 석물 형태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태실과 능은 왕의 생(生)과 사(死)를 보여 주는 주요한 유적으로, 그 석물을 통해서 조선 왕실 미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가봉된 태실과 조선왕릉은 위치, 제작 과정, 형태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왕실에서는 서운관(書雲觀), 관상감(觀象監)에서 태실이나 산릉이 설치될 풍수적인 길지를 살펴보고, 각각 태실도감과 산릉도감 등 임시 관청인 도감(都監)을 구성하여 정해진 시일 내에 완성했다. 풍수를 보는 관원이 태실이나 능의 위치를 정하면 이를 그림으로 그려 후보지를 왕에게 보고하기도 했고, 태실이나 능을 완성한 후에 태봉도(胎封圖)나 산릉도(山陵圖)처럼 그림을 남겨 태실과 능이 위치한 지형이 어떠한 형상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태실과 능이 완성된 후에는 의궤(儀軌)에 태실이나 능의 조성 과정 및 참여 인원, 소요 물품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요컨대 태실과 왕릉 조성에는 조정의 관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제작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두었다.

또한 태실과 능의 형태는 지하에 안장된 태실(胎室)이나 재궁(梓宮) 위로

9 崔恒, 『太虛亭文集』 권2, 「碑銘類」, 「胎室碑銘」.

지상에 석물을 이용하여 치장했다는 점과 석물의 주변으로 난간을 둘러 지하를 보호하고, 장엄을 갖추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조선 왕실에서 돌을 사용하여 난간을 조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난간석을 설치하는 경우는 청계천 광통교(廣通橋)와 같은 교량, 경복궁 정남문인 광화문(光化門), 경복궁 정전인 근정전(勤政殿)이 있고, 환구단(圓丘壇) 정전 등 조선의 왕이나 대한제국 황제를 상징하는 주요한 시설에 국한되어 설치했다. 교량에 난간석을 설치하는 경우는 안전을 목적으로 했지만 정전이나 정문, 태실과 왕릉 등에 난간석을 설치하는 경우는 생물의 접근을 막고 장엄하는 기능을 갖는다.

태실과 능의 석물은 모두 조선왕실에서 직접 제작에 관여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다만 인원과 출신지의 차이가 있어서 가봉 태실의 석물을 제작할 때 경석수(京石手) 2~3인이 지휘하고 향석수(鄕石手) 30여 명이 참여한 반면에, 능 석물을 조영할 때는 석수 약 100여 명이상이 투입되었다. 일례로 1801년에 가봉된 정조 태실은 경석수로 정유복·김성진·이춘삼 3인과 향석수 36인이 동원되어 총 39인이 태실 조성에 참여했고,¹⁰ 1800년 현재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정조 건릉 조성에는 석수 127인이 참여했다. 조선왕릉을 조성할 때는 태실을 조영할 때보다 약 3배의 인원이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¹¹

태실과 능의 차이점은 위치와 석물의 세부 구성에 있다. 태실과 능 모두 풍수적으로 주요한 지역에 조성했지만, 태실은 궁에서 멀리 떨어진 삼남(三南) 지방에 조성한 반면, 능은 도성 주변에 조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실은 왕이 방문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능은 왕이 행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궁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했다. 그리고 석물의 구성은 태실과 능 모두 대체로 유사하지만 난간석으로 각각 팔각, 십이각으로 구조를

10 『正宗大王 胎室石欄干造排儀軌』(1801), 「工匠秩」.

11 『正宗大王 健陵山陵都監儀軌』下(1800), 「工匠」.

다르게 했다. 태실은 언덕 중심에 귀부와 이수가 있는 작은 비석을 세우지만 능에서는 제례 공간인 정자각(丁字閣) 옆에 4m 이상의 귀부와 이석이 있는 신도비(神道碑)를 설치하거나 지붕형 옥개석(屋蓋石)을 가진 표석(表石)을 세운다. 이처럼 태실과 능은 석물의 규모와 크기, 설치한 위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왕실의 동산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태실과 능역 등 부동산을 조사했다. 1908년에는 헌종 태실을 중수하기도 했고,¹² 1910년에는 장례원(掌禮院)에서 각 지방관에게 발훈(發訓)하여 태실 봉안지구역과 관리인, 산림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¹³ 1918년에 발간된 총독부 도서에 따르면 태봉은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의 각 도에 24개소가 있고, 태봉산은 포의(胞衣)를 안치한 장소와 사초지 바깥 10칸 이내는 이왕가(李王家) 소유로 정했으며, 그 외에는 국유로 이속했다.¹⁴ 이처럼 1910년대까지도 태실 지역의 소유권 관리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인 1919년, 1926년 각각 고종과 순종이 승하했을 때 그 능을 황제릉 규모에 맞추어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한 태실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1930년대에 서삼릉으로 일괄적으로 이관하여 태항아리, 태지석을 중심으로 보관했다.¹⁵

조선왕릉 중 선종 선릉(宣陵)과 중종 정릉(靖陵)은 임진왜란 당시 도굴되어 지하에 재궁(粹宮)이 비어 있지만, 다른 능은 모두 재궁과 부장품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반면에 왕을 포함한 조선시대 태실 54기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

12 「胎室重修」, 《皇城新聞》, 1908년 5월 3일, 2면.

13 「胎室區域調査」, 《皇城新聞》, 1910년 5월 26일, 1면.

14 和田一郎, 「國有地の紛糾」, 『朝鮮彙報』(朝鮮總督府, 1918), 58~59쪽.

15 국립문화재연구소(편), 『西三陵胎室』(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22쪽; 김문식, 「서삼릉 태실의 조성과 태실의 현황」, 『조선왕실의 태실 의례와 장례 문화』(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143~175쪽.

었고 지하 석함에 매납된 태항아리와 태지석 등을 모아 서삼릉 지역으로 옮겨졌다. 이때 옮겨진 왕실의 태항아리와 태지석은 서삼릉에 위치했다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아마도 조선왕릉은 태실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능을 관리하는 능참봉(陵參奉)이 일제강점기에도 능에 머물며 관리했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수 없었지만,¹⁶ 태실은 여러 지방에 산재하여 주관하는 관청이나 지방관이 없었고 총독부에서는 지방의 토지를 편의에 따라 운용하기 위하여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신신앙의 주체가 되는 왕실 태실을 옮기거나 가봉된 석물을 철취하여 조선 왕실의 명맥을 끊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¹⁷

특히 태종 태실의 석물은 분해되어 잔재만 일부 남아 있고, 성종 태실을 전체를 임의로 옮기기도 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는 관리상의 문제를 이유로 왕실 태실을 본격적으로 훼손했으며, 광복한 이후에도 왕실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현재는 태실이 위치한 각 지자체에서 가봉 태실을 보수하면서 보존되고 있다.

태실 석물의 조성 과정과 참여 인원 및 용어 등에 관한 사항은 『태실가봉의 궤』와 『태실석물수개의궤』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태실을 구성하는 석물의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석물을 추가하는 가봉을 거치면 태실의 비석이 두 기인 경우가 있다. 하나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제작하여 해당 태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비석이고, 다른 하나는 석물을 추가할 때 이곳이 왕의 태실이라는 점을 알

16 조선 전반에 걸쳐서 능을 관리하는 陵參奉은 일제강점기에 왕실 사무를 관장하는 李王職으로 이어졌다. 이왕직에서 능을 관리하는 參奉은 194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 장신, 「일제하 이왕직의 직제와 인사」, 『장서각』 35(2016), 81~90쪽.

17 신병주, 「조선왕실의 출산과 태의 의미」, 국립고궁박물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편), 『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8), 235~236쪽.



그림4-조선왕실 가봉 태실의 석물 구성

려 주는 비석이다. 이 글에서는 두 비석을 편의상 아기비(阿只碑), 가봉비(加封碑)로 구분하도록 하겠다.

아기비는 상단에 복련의 연잎이 새겨져 있고, 하단은 단순한 형태의 받침 돌인 농대석(籠臺石)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문에는 대군명이나 태어난 일자를 간단하게 기록했다. 가봉비는 의궤에서는 표석(標石 혹은 表石)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형상은 이수(螭首)와 귀부(龜趺)로 꾸몄고, 비석의 앞면에는 성상(聖上), 혹은 묘호(廟號)가 기록되었다. 가봉비의 귀부는 농대석이라는 용어와 합쳐서 의궤에서는 ‘귀룡대석(龜籠臺石)’이라고 칭했다(그림4).

태실의 난간석은 횡렬로 된 죽석과 종렬로 된 난간석주, 동자석으로 구성되며 의궤에서는 각각 ‘횡죽석(橫竹石)’, ‘연엽석주(蓮葉石柱)’, ‘연엽동자석(蓮葉童子石)’이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태실의 중앙으로는 지붕돌인 개침석(蓋簷石)과 구형이나 원통형을 모습의 중동석(中童石), 그 아래로 사방석(四方石)을 배치했다. 의궤에서 난간석주와 동자석에 ‘연엽(蓮葉)’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는데, 실제 태실 난간석의 구성은 의궤 도설과 마찬가지로 상단에 원



그림5-문조 태실 난간석의 의궤
도설과 실물



그림6-『국조오례의』의 용례로 본 조선왕릉
난간석주의 구조와 명칭

수(圓首)를 두고, 중앙으로 기둥을 세운 후, 양옆에 양련엽과 복련엽의 잎사귀를 표현했다. 또한 동자석은 양련엽을 나타내었다(그림5). 이러한 점을 조선왕릉 난간석과 비교하면 소략하다. 조선왕릉 난간석주의 세부적인 구성과 용어에 관해서는 『국조오례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¹⁸ 이를 성종 선릉의 난간석주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6). 우선 상단에는 원수(圓首)가 있고, 그 아래에 양련과 복련의 연꽃(仰覆蓮), 기둥의 양옆으로는 양복련엽(仰覆蓮葉)이 있고 그 사이에 원주(圓珠)를 배치했다고 기록했다.¹⁹ 즉, 조선왕릉의 난간석주는 연꽃의 봉오리와 꽃잎, 연잎을 구성했고, 태실의 난간석주

18 조선 시대의 예전을 종합한 『국조오례의』는 성종 연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국조오례의』에 기술된 왕릉 석물의 규격과 형상을 그대로 따라 조성한 왕릉은 성종 선릉이다. 전나나, 「조선왕릉 병풍석과 난간석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80쪽.

19 『國朝五禮儀』 권7, 「凶禮」, 「治葬」, “石柱十二高各六尺 方廣各一尺一寸 以上端一尺爲圓首 次一尺三寸 分作仰覆蓮 次以九寸 爲納竹石端處 次以二尺一寸 兩旁分作仰覆蓮葉 間刻圓珠仰蓮葉 擎竹石端覆蓮葉 鎮隅石 竝高五尺三寸 其覆蓮葉下七寸 周回斷除 圓徑七寸 植於隅石鑿中”.

는 연잎으로만 표현하여 상대적으로 소략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석물로 가봉된 조선왕실의 태실은 고려시대에 없던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실을 봉안한 사례로 6~7세기에 조성된 김유신(595~673) 태실이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고, 고려의 인종(1109~1146) 태실이 경상남도 밀양에 위치한다. 고려의 태실은 즉위한 이후에 가봉하는 형식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태를 항아리에 보관하여 지하에 묻고 아기비를 설치하는 형식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태조의 태실은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 함경도에서 전라도 완산부로 옮겨지는데 조선 전기에는 고려의 유습(遺習)에 따라 태를 간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이후 조선에 들어서 왕이 즉위한 이후에 가봉 태실을 추가로 조역했다.²¹

현재 전해지는 조선왕실 태실 석물은 광복 이후에 임의로 석물을 추가하거나 옛 부재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그중에서도 원형을 비교적 잘 갖추었고 기록과 비교가 가능한 태실을 토대로 석물의 시대적 변화를 추적하고 양식의 흐름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조선 태실 석물의 전개

1. 조선 전기에 제작된 태실 석물의 특징

1) 태종 태실

태종의 태실에 관한 사항은 장서각에 전해지는 『태봉(胎封)』을 통하여 당

20 윤진영, 「조선 후기 安胎儀禮의 개선과 정비」, 『조선시대사학보』 67(2013), 396~397쪽.

21 심현용, 「고려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시론」, 『강원사학』 27(2015), 75~88쪽.

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태봉』에는 안태(安胎) 절차와 함께 서삼릉으로 왕, 왕후, 대군, 공주, 옹주 태실의 태향아리와 태지석이 옮겨진 사항이 기재되었고 마지막에는 효종의 딸인 숙명공주(淑明公主)의 아기비와 태종(太宗) 가봉 태실의 석물 형태 및 제원이 그려져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태종 태지석에 따르면 성주군(星州郡) 성암면(聖巖面)에 있던 태종의 태가 1929년에 이장되었다. 현재 경상북도 성주군청에 태종 태실 석물이 일부 전해진다.

성주군청에서 보관 중인 태실 난간석주는 실측한 치수가 103~105cm이며, 『태봉』에서 ‘3.45’로 기록했다. 이 치수는 환산하면 30cm에 해당하여 영조척(營造尺)²²으로 작성되었다. 동자석 높이는 44cm로 『태봉』에 그려진 그림과 형상이 같으며, 책에서는 길이를 ‘1.4’로 기록하여서 역시 영조척으로 작성했다. 『태봉』 태종 태실의 도설 형태 및 제원이 실물과 일치하기 때문에 성주군청에 보관된 석물은 태종 태실 석물이 확실시된다.²³ 현존하지는 않지만 『태봉』 도설에 그려진 태종 태실의 팔각 개첨석 스케치는 태조 태실 석물과 유사성을 보인다.

태종 태실 난간석 형태가 독특한데, 이는 고려 왕실에서 사용한 난간석주의 구성과 형태를 이어 가는 모습이다. 조선왕릉 난간석주의 상단부인 원수가 주로 구형이나 원뿔형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고려 왕릉의 난간석주는 방형을 기본으로 한다. 이처럼 태종 태실은 고려 왕릉의 난간석처럼 고식(古式)을 차용했다(그림7). 또 난간석주 상단의 두 줄 표현이나 방형 구조는 고려 후기의 고종 홍릉(洪陵) 난간석과 유사성을 보인다(그림8).

22 조선시대에 사용한 자의 종류는 황종척, 주척, 조례기척, 포백척, 영조척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영조척을 다수 사용한다. 영조척은 현재의 크기로 환산하면 1尺에 약 30~31cm이다.

23 대동문화재연구원(편), 『성주 태종·단종태실 학술(지표)조사 결과보고서』(대구: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22쪽.



그림7-태종 태실 난간석주, 1401년,
필자 촬영



그림8-고종 흥릉 난간석, 1259년,
필자 촬영



그림9-태종 태실 동자석, 1401년,
필자 촬영



그림10-고려 공민왕 노국대장공주
현릉·정릉의 동자석, 1365~1374년
소재구 촬영

죽석을 받치는 동자석의 형태가 단순하게 구성된 점은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의 능 석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고려 14세기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현릉(玄陵)·정릉(正陵) 및 1408년 신의왕후 제릉(齊陵)의 동자석과 유사하다(그림10).

조선을 건국한 직후에 조성한 능의 난간석주는 원수를 구형으로 구성하여, 고려 왕릉과 차별성을 보인 것과 달리 조선 태실의 난간석은 이전 시대의 양식을 차용하고 있다. 즉, 태실 석물은 능에 비하여 새로운 양식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태종 태실의 난간석주는 후대에 제작한 일반적인 조선왕실의 태실

석물처럼 연잎 문양을 새겨 넣지 않아 단순화된 모습이다. 태종 태실의 석물은 1400년에 태종이 왕으로 즉위한 후인 1401년에 제작한 석물로 보인다.²⁴ 특히 이 석물은 고려 후기의 왕실 석물 양상을 다수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능단간석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소략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2) 성종 태실

성종 태실은 본래 경기도 광주(廣州) 경안역(慶安驛) 영장산(靈長山)에 위치했고,²⁵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457년에 탄생한 성종의 태실은 본래 아기비인 표석만 있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신도비에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 1471년(成化 7)에 성종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처음 가봉되었고, 1578년(萬曆 6)과 1652년(順治 9), 1823년(道光 3)에 비석을 고쳐 세웠다. 1910년에 광주군 경안면 전매리의 토지 개간 계획을 세우던 중 성종 태실 지역을 조사했고,²⁶ 1928년에 현재의 위치로 석물을 이전했으며 지하 석함에 있던 태항아리와 태지석은 서삼릉으로 옮겼다.

1823년에 성종 태실의 비석을 다시 세우면서 『성종대왕 태실비석개수의례(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儀軌)』에 석물을 제작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당시 바람에 쓰러진 회목(檜木)에 의해 석물이 일부 부서졌고 그중에서 이수가 있는 비석만 새로 제작하여 세웠다. 비석의 제작한 석수는 김성한(金成漢)·김정도(金鼎道)·홍의득(洪儀得)·유춘근(柳春根) 4인이고, 글자를 새기는 각수(刻手)는 최익대(崔益大)·이세영(李世榮)·이완배(李完培) 3인, 화사(畫師)로 승려 유의(宥義)·영학(永學)이 참여했다. 태실 표석의 글자를 쓴 서포

24 『太宗實錄』 1년(1401) 10월 12일, “安胎于京山府 祖谷山 閱壽詣咸州 奉胎函以至京山府 定胎室侍衛品官四員及守護人十戶”.

25 『春官通考』 권43, 「胎峯」, “成宗大王 胎峯 廣州慶安驛靈長山 在州東 初境十里 終境四十里”.

26 「胎室基址와 道訓」, 《每日申報》, 1910년 12월 10일, 2면.

관(書標官)은 광주 유수인 홍의신(洪義臣)이다.²⁷

즉, 현재 창경궁에 있는 성종 태실은 1471년에 가봉되었고, 비석 중 이수가 있는 일부만 1823년에 새로 제작했다. 성종 태실의 개첨석은 가장 상단에 구형의 원수(圓首)가 2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잎이 세모꼴로 이어져 있으며, 중동석은 원통형에 가까운 형태이고, 하단의 사대석은 양편이 각진 형태로 조각되어 있다.

성종 태실의 가봉비는 귀부와 이수의 부재마다 양식의 차이를 보여 제작 연대가 구분된다. 성종 태실의 귀부는 얼굴이 세모형이고, 거북이의 받침돌 형태는 15세기에 사각형 틀에서 벗어나 다각형 구조로 입체적으로 변모했다(그림11). 이러한 귀부의 형태는 동 시기인 1471년에 제작한 서울 원각사지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의 거북이 형태와 유사하다(그림12). 두 비석은 세모꼴의 얼굴 표현과 눈의 세부적인 표현, 받침돌의 다각 구조, 귀갑(龜甲)의 입체적인 표현 등에서 유사하다. 새로 제작한 성종 비석은 덕곡에 비축한 석재를 이용했으며, 귀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비석만 새로 조성했다.²⁸ 현재에도 성종 태실의 석물 중에서 비신 부분만 돌무늬가 달라 귀부와 이수가 있는 비신은 다른 재질임이 확인된다. 성종 가봉비의 이수는 의궤에서 “용 머리의 비닐과 갈기[鱗鬣]을 움직이는 것처럼 해야 한다.”²⁹고 지시한 것과 달리 평면적인 조각을 보여 준다.

27 『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儀軌』(1823).

28 『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儀軌』(1823), 五月初二日, “留守移文禮曹爲相考事 成宗大王胎室碑改立石材依貴曹啓下關私儲中從便貿用而卽接兼監役本府判官牒呈則本府地德谷有私儲之石材而堅細美好故見方貿得運致爲去乎始役及豎碑吉日時推擇下送以爲舉行之地亦爲有等以馳進看審則石品甚美果合取用是乎所始役與豎立吉日時卽爲推擇以送而舊碑坐向爲酉坐卯向是置相考施行向事”.

29 『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儀軌』(1823), 五月二十一日, “留守題辭內龍頭與鱗鬣務從深刻以爲宛然如動之地宜當向事”.



그림11-성종 태실비, 필자 촬영



그림12-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1471년, 필자 촬영



그림13-오가와 게이키치가 조사한 사진, 일제강점기 촬영, 일본 교토대학 소장



그림14-성종 태실의 난간석주, 필자 촬영



그림15-공혜왕후 순릉 난간석주, 1474년, 필자 촬영



그림16-창덕궁 금천교, 1411년, 필자 촬영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한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가 촬영한 사진³⁰은 부도로 잘못 소개되어 있지만 성종의 태실로 보이며, 창경궁으로 이전하기 전에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된다(그림13). 특히 남쪽으로 이수가 있는 비석의 뒷면이 보이는데, 아마도 1471년경에 조성했던 이수일 것으로 여겨진다.

3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편),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서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80쪽.

성종 태실의 난간석은 석주와 동자주 모두 정면에서 연잎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각했는데(그림14), 이는 조선 후기에는 태실 난간석 옆면에 주로 조각한 점과 다르다. 난간석주의 기둥 부분에 두 줄의 세로선을 넣은 부분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궁궐 금천교 및 조선왕릉 난간석에서 주로 볼 수 있다(그림15, 그림16). 따라서 성종 태실의 석물은 1471년에 제작되었고, 이수가 있는 비석만 1823년에 제작하여 다양한 시대에 조성된 석물이 전해진다.

3) 예종 태실

일제강점기에 전라북도 전주시 경기전(慶基殿) 내로 옮겨진 예종 태실은 비록 아기비는 없지만 다른 석물은 잘 남아 있다. 예종의 태실은 1578년에 처음 조성되었으며 1734년에 수리되었는데, 이때 주로 상석(裳石)과 표석(表石)을 보수했다.³¹ 현재 남아 있는 태실 석물은 대체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석물로 보인다.

예종 태실 가봉비의 귀부는 동그란 귀갑(龜甲)과 머리의 돌출이 적은 모양으로 15세기에 제작된 세조 태실비 귀부와 유사성을 보인다(그림17, 그림18). 가봉비의 이수는 한 마리의 용이 중앙 정면에서 보주를 향하는 모습으로, 머리 부분은 환조에 가깝게 입체적으로 표현했다(그림19). 이러한 이수의 표현은 16세기 전반에 세운 정미수(鄭眉壽, 1456~1512)³² 묘의 비석과 유사성을 보인다(그림20). 예종 태실과 정미수 묘의 이수는 용이 머리를 돌출시켜서 보주를 향하는 자세와 표현이 일치하여 동시대의 미술 경향을 공유하고 있다. 영조 연간에 예종 태실을 보수한 내용을 담은 의궤가 남아 있지 않지만, 예종 태실에서 상석은 조각났고, 비석의 전면과 후면이 갈라져 있다

31 『承政院日記』, 英祖 10년(1734) 5월 26일.

32 정미수의 어머니는 문종의 장녀인 경혜공주이며, 정미수는 문종의 외손자다.



그림17-예종 태실비의 귀부, 필자 촬영



그림18-세조 태실비의 귀부, 1462년, 필자 촬영



그림19-예종 태실비의 이수, 필자 촬영



그림20-정미수 묘 비석의 이수, 1512년경, 필자 촬영

고 보고한 기록이 남아 있어³³ 이 시기에 비석을 갈아서 다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³⁴

4) 중종 태실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중종 태실은 1507년에 가봉되었고,³⁵ 일제강점기

33 『承政院日記』, 英祖 7년(1731) 6월 26일.

34 현재 예종 태실의 가봉비 전면에는 ‘睿宗大王胎室’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만력 6년(1578년) 10월 초2일 건, 후 156년(1734년) 갑인 8월 26일 개석립(萬曆六年十月初二日建後百五十六年 甲寅 八月 二十六日 改石立)’으로 기록되어 16세기에 제작된 석물을 토대로 갈아 낸 것으로 보인다.

35 중종반정의 공신인 좌의정 朴元宗이 중종의 태실을 안치할 태봉을 봉심했고[『中宗實錄』 2년(1507) 4월 2일], 주상의 태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평현을 군으로 올렸다[『中宗實錄』 2년(1507) 10월 3일].

옹석에 있던 항아리와 태지석은 서삼릉으로 옮겨졌으며, 1982년에 태실 석물이 일부 발견되었다. 현재 중종 가봉 태실의 석물은 아기비 1점, 귀부와 이수가 있는 태실비 1점이 있고, 원형으로 보이는 난간석 일부는 비석 근처에 위치한다. 중종 태실은 지하에 있어야 하는 옹석을 지상으로 돌출시켜서 그 둘레에 팔각의 난간석을 설치했다. 옹석 주변에 있는 난간석은 대부분 새로 제작한 것이며 그중 두 점만 원형으로 추정된다.

태실비의 귀부는 목 부분이 결손되었고, 이수도 용 형상을 깊이 있게 조각했지만 마모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비신 중앙을 새로운 부재로 교체했다. 비신 전면에 ‘주상 … 태장(主上 … 胎藏)’이라고 명료하게 새겨져 있어 왕이 등극한 이후에 제작한 것이 확실하다. 중종 태실의 이수는 앞면에서 보면 두 마리의 용이 중앙에 보주를 향해 있고, 하단에는 여의두문(如意頭紋)이 있다(그림21). 비석의 반원형 형태와 쌍룡이 보주를 향하는 자세는 동시대에 제작한 묘비석 중 한치례(韓致禮, 1441~1499)의 1500년 묘비석과 유사하다(그림22).

중종 태실의 난간석주는 원수(圓首)가 원뿔형에 가깝고, 몸돌에 양각으로 두 줄을 선명하게 조각했으며, 죽석을 받치는 연잎은 삼각 형태로 조각했다. 이러한 난간석의 형태는 동시대에 제작한 조선왕릉의 난간석 형상과 유사하여 16세기 석물이라는 점이 자명하다. 현재 설치된 중종 태실 동자석은 원형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비석 옆에 남아 있는 난간석 부재에서 원형을 살펴볼 수 있다.

중종 태실 동자석은 난간석주의 연잎 부분을 차용하여 나타냈으며, 석주와 마찬가지로 잘록한 형태를 드러내며 특히 측면의 조각이 명료한 편이다. 이처럼 중종 태실은 본래의 위치에 전해지기 때문에 사적으로서의 주요한 가치를 갖추었다. 중종 태실은 원 부재를 잘 보관하고 있지만 태실비의 방향이나 지하에 있어야 하는 옹석의 노출 여부, 난간석의 신부재로 교체 등에서 복원의 아쉬움이 있다(그림23).



그림21-중종 태실의 태실비의 이수 부분, 필자 촬영



그림22- 한치레 묘 신도비 이수 부분, 1500년, ©경기도박물관



그림23-중종 태실 전경, 필자 촬영

5) 인종 태실

2022년에 보물로 지정된 인종 태실은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다. 인종 태실은 1521년에 처음 설치되어, 인종이 승하한 후인 1546년에 석물이 가봉되었으며, 1680년에 개수되었고,³⁶ 1711년에 태실비가 재건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태실 지하에 있던 태항아리와 태지석이 서삼릉 지역으로 옮겨진 후 1999년 발굴조사를 하여 2007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했다.

인종 태실은 은해사(銀海寺) 경내에 위치하여서 다른 태실 구역이 일제강점기 이후 개인 소유가 되어 훼손된 것과 달리 보존이 잘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석물의 형태와 구성이 원형을 대체로 유지했으며, 관련된 발굴보고서

36 『胎峯臚錄』권1, 「列聖胎峯」, “仁宗大王 胎峯永川公山肅宗庚申四月修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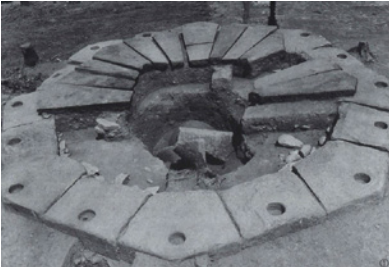


그림24-인종 태실의 출토평,
1999년 촬영³⁷

가 남아 있어 조사 및 변형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1680년에 경상감사 박신규(朴信圭)가 봉번하니 인종 태실이 오래되어 석물에 틈이 생겼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때 난간석주 5개와 동자석 3개를 교체했고, 석물 사이의 틈을 메우고, 부러진 기존의 난간석은 깨끗한 곳에 묻어 두도록 했다.³⁸

1999년에 인종 태실을 발굴 조사한 모습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 파헤친 흔적이 그대로 나타난다. 다행히 지하에 있던 옹석과 난간석의 받침돌인 전석, 그 위를 덮는 상석이 잘 남아 있다(그림24). 현재 인종 태실의 석물 중앙기둥은 없고, 이수와 귀부가 있는 가봉비는 있다. 환조인 귀부와 부조인 이수는 1546년에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비신은 현대에 복원했을 때 새로 제작하면서 글자를 다시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발굴 당시에 수습한 비신 앞면은 마모되었지만, 뒷면의 ‘가정이십오(嘉靖二十五)’까지 식별된다. 현재 인종 태실에는 해당 비신이 주변에 잘린 채로 남아 있다.

현재 인종 태실의 사방석과 중동석, 상단의 원수는 현대에 들어서 명종 태실과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여겨지며, 개침석은 1999년에 발굴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인종 태실의 개침석은 17세기 이후에 조성된 능묘 장명등과 비

3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편), 『仁宗胎室 發掘調査報告書』(경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영천: 영천시, 1999).

38 『胎峯臚錄』 권1, 「庚申二月初八日」, “仁宗大王胎室奉審”.



그림25-인종 태실 개침석, 필자 촬영



그림26-공빈 김씨 성묘 장명등 옥개석, 1610년, 필자 촬영



그림27-인종 태실 난간석, 필자 촬영



그림28-공빈 김씨 성묘 난간석, 1610년, 필자 촬영

교할 수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형식은 선조의 후궁이자 광해군의 모후인 공빈 김씨의 성묘(成墓)이다.³⁹ 인종 태실의 개침석⁴⁰은 기왓골이 명료하고 직선으로 뻗어 있으며, 개침석의 하단 곱새기와의 있는 부분에 선각으로 여의두문을 조각한 점 등에서 성묘 장명등의 옥개석과 유사하다(그림25, 그림26).

인종 태실과 공빈 김씨 성묘 석물의 공통점은 개침석뿐 아니라 난간석주

39 공빈 김씨 성묘는 본래 묘로 조성되었다가 광해군 즉위 이후에 능으로 조성되었고,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능호를 잃게 되었다. 현재의 성묘는 1610년에 成陵으로 조성했던 석물이다.

40 인종 태실의 개침석은 가장 상단에 있는 원수는 발굴보고서에 나오지 않아 최근 보수 시 추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에서도 볼 수 있다(그림27, 그림28). 성묘의 봉분은 다른 왕릉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편으로, 난간석 역시 크기가 작아 한 면에 죽석을 하나만 배치하였다. 인종 태실과 성묘의 난간석주는 원수의 크기가 작고 죽석을 받치는 연엽이 작게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태실 석물은 능이나 왕실에서 조성한 무덤 석물의 양식적 흐름을 이어 가는 모습이다. 인종 태실과 성묘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석물이지만 치석 수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도 지방에서 가봉 태실을 제작할 때 경석수의 파견이 빈번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인종 태실의 가봉비는 인종이 승하한 후인 1546년에 조성되었고, 현재 1546년 조성 당시의 석물과 1680년에 교체한 석물이 함께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원된 인종 태실 주변으로 원 부재 등이 다수 보이는데, 약간의 치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대에 들어서 발굴한 16세기와 17세기 석물 부재가 함께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6) 명종 태실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명종 태실은 2018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명종 태실은 인종 태실과 마찬가지로 석물의 원형이 잘 남아 있고, 아기비와 가봉비 등이 전해지고 있어 원 부재를 연구할 수 있는 주요한 태실 중 하나이다. 명종 태실은 선조 을해년인 1575년에 민가에서 명종 태실의 난간석을 파손시킨 일이 있다.⁴¹ 이를 통해 지역에 있는 태실을 왕의 일부로서 이해했다는 사실과 태실의 파손은 왕실에서 주요하게 인지했던 점을 알 수 있다.

명종 태실은 1538년에 처음 조성되었고, 명종이 왕으로 즉위한 후인 1546년에 태실비 등을 가봉한 후, 1711년에 추가로 태실비를 설치했다. 따

41 『春官通考』 권43, 「胎峯」, “宣祖八年乙亥 忠淸道瑞山郡 有奸民 欲害其宰 打破明宗胎峯石欄”.



그림29-명종 태실 전경, ©국가유산청



그림30-명종 태실,
필자 촬영



그림31-명종 강릉의
장명등, 1567년,
필자 촬영

라서 명종 태실 난간석 등 다수의 태실 석물은 1546년에 조성된 것이다(그림 29). 명종 태실의 석물은 왕실 능묘 석물과 유사성을 보인다. 명종 태실의 개첨석의 둥그스름한 처마의 윤곽이 1568년에 제작된 명종 강릉의 장명등 옥개석과 비슷한 굴절, 유사한 두께감을 보인다(그림30, 그림31).

그리고 명종 태실에는 1538년, 1546년, 1711년에 세운 비석이 전해져 16세기와 18세기의 석물이 종합되어 있다. 『태봉등록』에 1711년 비석을 새로 설치하는 과정을 다루면서 이때 새로 세운 석재는 태봉에서 30리 떨어진 해미(海美)에서 떠왔던 내용을 기재했다.⁴² 비록 현재는 석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상으로 박석(薄石)을 갈아 태실의 원형과 다르지만 명종 태실 석물의 제작 시기가 명확하고, 시대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왕실에서 제작한 석조 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높다.

42 『胎峯臚錄』(1643), 辛卯十月二十日, “碑石段浮取於海美境距 胎峯三十里之地以各邑人丁曳運 以入爲白有在乎伏見.”

2. 조선 후기에 제작된 태실 석물의 특징

1) 정조 태실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정조 태실은 정조가 탄생한 이듬해인 1753년 영월(寧越) 계죽산(鷄竹山)에 조성되었다가⁴³ 정조가 승하한 후인 1801년 10월에 석물이 가봉되었다.⁴⁴ 이후 일제강점기에 내부가 파헤쳐져 태실 석물은 석회광산업자의 채취 공사로 훼손되어 매몰되었다가 1967년 영월개발위원회에서 금강공원(이후 영월KBS방송국)으로 옮겨 관리했고, 1997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서 복원했다.⁴⁵ 정조 태실은 두 차례 옮기는 과정에서 석물이 일부 유실된 상태로 복원했다.⁴⁶ 현재 정조 태실 석물은 아기비를 비롯하여 귀부와 이수가 있는 가봉비 및 난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조 가봉 태실이 이전 태실 석물과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동석에 문양을 새기기 시작했다. 정조 태실의 중동석에는 사방으로 운문(雲紋)이 있고, 상하에는 연환문(連環紋)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으며, 팔각의 사방석에도 운문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가봉 태실에서는 없기 때문에 1801년부터 태실에 치장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중동석에 새겨진 운문은 만자(卍字)형으로 이는 직물, 목가구 등에서 확인된다(그림32). 특히 해당 운문은 비단의 문양으로 다수 사용되어 어진이나

43 『春官通考』권43, 「胎峯」, “正祖大王 胎峯 寧越鷄竹山正陽里 在府南十里 英祖二十九年癸酉 封”.

44 『正宗大王 胎室加封儀軌』(1801).

45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편), 『(2022年度) 江原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寧越 正宗大王胎室 및 胎室碑』(영월군: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2022), 93쪽.

46 1995년 발행된 『寧越郡의 歷史와 文化遺蹟』에 따르면 당시 석함 1점을 비롯하여 107cm와 97cm 난간석주 2점과 민가에서 보관하는 동자석 1점이 있고, 일부는 매몰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했다. 1999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기존 부재와 새로운 부재를 다수 혼재하여 복원했다. 한림대학교 박물관(편), 『寧越郡의 歷史와 文化遺蹟』(춘천: 한림대학교 박물관, 1995).



그림32-정조 태실의
중동석과 사방석 문양,
필자 촬영



그림33-정조 상시호 옥책함,
1800년경, 국립고궁박물관



그림34-문정왕후 태릉
의 난간석주, 1565년,
필자 촬영

사대부의 초상화에서 해당 금문(錦紋)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왕실 미술품 가운데에는 어람용 외규장각 의궤의 표지, 왕이나 왕후의 옥책을 싸는 비단, 옥책함 문양(그림33) 등에서도 나타나며, 그 밖에도 현판, 당가, 옥책함 등 목조로 된 왕실 미술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조 가봉 태실의 중동석에 새겨진 연환문은 조선왕릉의 난간석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양이다. 연환문은 16세기 문정왕후 태릉(泰陵), 명종 강릉(康陵) 이후 조선 후기 왕릉 난간석에 꾸준히 나타난다(그림34).

둘째로 정조 태실의 난간석주는 축석에 이어진 주신(柱身)의 상단 중앙에 원(圓) 문양을 양각으로 새겼다는 점이 특이하다(그림35). 이와 같은 조선왕릉 난간석주는 1800년에 조성된 정조 건릉(健陵) 난간석주가 있다(그림36). 조선왕릉의 난간석에 십이지(十二支), 팔간(八干) 등을 새기는 경우는 조선 후기부터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원 문양을 새기는 모습은 조선왕릉 중에서는 정조 건릉부터 보이며 이는 정조 태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정조 태실 석물이 기존과 다른 마지막 특징은 동자석의 형태가 간소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그림37). 조선왕릉 난간석은 제작 시기가 명확하



그림35-정조 태실의 난간석주, 필자 촬영



그림36-정조 건릉의 난간석주, 1800~1821년, 필자 촬영



그림37-정조 태실의 동자석, 필자 촬영



그림38-숙종 명릉의 난간석주, 1701년, 필자 촬영

고, 태실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부터 의궤가 남아 있어 어떠한 점을 수리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연잎으로 표현한 동자석은 조선 전기에는 연잎을 상단에 양련과 하단에 복련으로 구성하여 상하로 조각했던 반면에 1701년부터 양련만 조각하여 간소화를 추구했다(그림38).

정조 태실 이전에 조성한 경종과 영조의 태실 동자석은 모두 양련과 복련을 함께 만들었던 점에서 정조 태실의 동자석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상단



그림39-장조 용릉 장명등,
1789년, 필자 촬영



그림40-정조 건릉 장명등
1800년, 필자 촬영

만 표현한 양련형 동자석은 조선왕릉에서는 1701년부터 19세기 중반까지만 나타나며, 1801년 정조 태실의 동자석도 이 형태를 따라 조선왕릉 석물의 시대적 양식 변천에 따르고 있다. 양련형 동자석은 태실에서는 정조 건릉 이후에 현종, 순조, 문조 태실까지 이어져 19세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형태는 시대성을 보여 주는 요소이다. 즉, 정조 태실의 석물은 왕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궁중 미술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고, 동자석의 형태는 조선 후기의 능묘 석물이 간소화된 경향을 따른다.

석물을 제작한 석수(石手)를 통해서도 정조 가봉 태실과 정조 건릉의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1801년에 정조 태실에 석물을 세울 때 참여한 도변수(都邊首) 경석수는 정유복(鄭有福)·김성진(金聲振)·이춘삼(李春三)이며, 그중 정유복은 1789년 장헌세자[사도세자] 현릉원(顯隆園) 조성에 참여한⁴⁷ 후에 면천(免賤)되었다.⁴⁸ 정유복은 1800년 정조 건릉을 조성할 때에는 석수의 우

47 『顯隆園園所都監儀軌』(1789), 「工匠秩」, “園所都監別單 大浮石所石手金大輝 居東部 判付 已帖加從自願免賤 鄭有福 居東部 判付 從自願免賤”.

48 『日省錄』, 正祖 13년(1789) 10월 22일.

두머리인 대부석소 변수(邊首)로 활약했고,⁴⁹ 이때 함께 참여한 사람으로 김성진과 이춘삼도 있어⁵⁰ 이듬해 정조 태실을 조영할 때에 경석수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조 태실의 개첩석은 여덟 개의 방위마다 가장자리가 살짝 올라와 있는 점이 조선 후기에 제작된 왕릉의 팔각 장명등 옥개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그림40). 이는 1789년에 완성된 장조 융릉[조선 당시에는 장헌세자 현릉원(顯隆園)으로 조성]의 장명등보다 1800년에 조성된 정조 건릉의 장명등의 개첩석과 더 닮아 있다(그림39, 그림40). 융릉과 건릉의 장명등 및 정조 태실의 개첩석은 두 개의 연잎이 개첩석 정상에 덮여 있고 처마가 들려 있는 형태는 유사하지만 융릉 장명등은 연잎과 처마의 반전이 강하고, 건릉 장명등은 반전이 융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표현되었다. 융릉을 조성했을 때 159명의 많은 석수가 참여했고,⁵¹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변수가 다수 있었다. 반면에 정조 건릉의 대부석소의 변수가 정유복으로 그는 정조 태실 석물을 조성한 경석수로 활동했다. 요컨대 정조 건릉의 석물을 만들었던 석수의 우두머리 정유복이 정조 태실의 석물을 제작하면서 정조 건릉에 적용했던 문양과 형식을 태실 석물에도 일정하게 반영했다.

정조 태실의 석물은 제천(堤川)에서 떠내고, 비석은 원주(原州)에서 가져오도록 했다. 이때 경석수인 정유복을 먼저 보내어 인근에서 쓸 만한 석재를 간품(看品)하도록 했던 점도 기재되었다. 그리고 정조 태실의 치수는 영조 태실과 유사하게 제작하도록 했으며, 비석에 글자는 예조판서 정대용(鄭大容)이

49 『健陵山陵都監儀軌』(1800), 「山陵都監別單」, “石手 邊首 鄭有福從自願免賤”.

50 『健陵山陵都監儀軌』(1800), 「工匠」, “工匠 石手 鄭有福 金重世 柳輔漢 朴尙吉 朴福順 … 金成振 … 李春三 …”.

51 『顯隆園園所都監儀軌』下(1789), 「工匠秩」.



그림41-정조 태실의 이수,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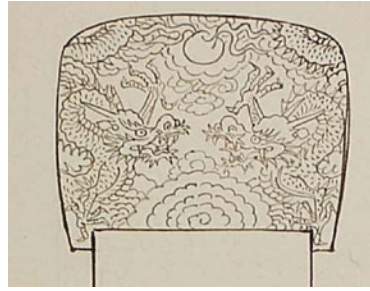


그림42-『정종대왕 태실가봉의궤』도설, 180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쫘다.⁵²

정조 태실의 비석 상단에 있는 이수의 형상도 의궤 도설과 가장 유사하다 (그림41, 그림42). 의궤의 도설과 실물이 항상 같지는 않지만 정조 태실의 비석은 의궤 도설처럼 용의 머리가 크고 둥글둥글한 양감이 돋보이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처럼 정조 태실의 석물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직물, 공예품, 의궤 등에서 사용하는 칠보(七寶)문양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사방석을 팔각으로 변형하면서 문양을 더했으며, 난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상석에도 문양을 추가하여 화려하게 장엄했다. 또한 동자석은 상단에 앙련만 표현하여 기존과 다른 형태를 갖추었다.

정조 태실은 공역에 참여한 인물이 정조 건릉을 조성할 때에 석수로 참여한 사람과 동일하여 유사한 석물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로써 정조 태실의 석물 형태가 정조 건릉과 밀접한 친연성을 보이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52 『正宗大王 胎室石欄干造排儀軌』(1801).

2) 문조 태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문조 태실은 문조의 추승 사업이 활발한 1830년대에 가봉되었다. 문조는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孝明世子)로 순조를 대신하여 대리청정했다가 3년 만인 1830년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고, 그 아들 현종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1834년에 효명세자는 익종(翼宗)으로 추존되어 왕이 되었고,⁵³ 그 무덤도 연경묘에서 수릉(綏陵)으로 옮겨졌다.⁵⁴ 이후 익종에서 문조(文祖)로 추존되어 현재까지 그 묘호를 이어 오고 있다.⁵⁵

문조 태실은 현재 당시 태봉이 아닌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본래의 위치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현재 문조 태실 석물로는 하마비(下馬碑)를 비롯하여 귀부, 중동석과 개침석, 괴임돌인 사대석 일부, 난간석주 6점, 동자석 1점, 죽석 1점, 우전석과 면전석, 우상석과 면상석이 있으며, 지하에 있었던 옹석까지 남아 있다.

처음 효명세자가 태어나서는 태실에 석함인 옹석(瓮柙), 개석(蓋石), 지석(識石) 및 표석(標石)을 조성했고,⁵⁶ 그중 옹석만 이 지역에 남아 있다. 옹석은 황해도 토산에서 떠온 연석(軟石)를 이용했으며, 크기는 영조척으로 높이가 2자 5치(약 77cm), 둘레 7자(약 210cm)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옹석의 크기는 높이 52cm, 둘레 240cm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바닥면에 구멍이 뚫린 부분까지 나타나 1807년 당시 제작한 원 부재로 여겨진다(그림 43, 그림 44).

문조 태실에 있는 난간석은 왕으로 추존된 후인 1836년에 추가로 가봉되

53 『憲宗實錄』 즉위년(1834) 11월 20일.

54 『追崇都監儀軌』(1835).

55 『高宗實錄』 36년(1899) 12월 7일.

56 『元子阿只氏藏胎儀軌』(1809), 「一九月初七日」, “觀象監官員以提 啓曰安 胎時石物古例則用瓮石 蓋石內識石標石而庚戌年則因 特教只用瓮石蓋石矣今番則何以爲之敢啓 傳曰依庚以年例爲之”.



그림43-문조 태실의 옹석,
필자 촬영



그림44-문조 태실의 옹석 내부,
필자 촬영

있다. 이를 기록한 의궤 내용과 비교해 보면 1836년에 비석과 귀대석, 개침석과 중동석, 사방석을 제작했고, 난간석인 연엽주석과 동자석, 죽석 및 바다돌인 우전석, 면전석, 우상석, 면상석 등을 조성했다. 현재는 비석이 없이 귀대석만 남아 있는데, 비신에는 다른 석물 부재가 꽂혀 있어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궤에 기록된 귀대석[귀부]의 길이는 6자 8치(약 204cm), 너비 4자(약 120cm), 두께 4자(약 120cm)로 현재 설치된 귀대석의 실측치인 길이 197cm, 너비 106cm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림45). 의궤에 기록된 중동석이 높이 2자 7촌(약 81cm), 개침석의 높이 3자 5촌(약 105cm)와 실측치와 유사하다. 사대석의 크기는 의궤에서 사방이 4자(약 120cm)로 적혀 있어⁵⁷ 현재 남아 있는 사대석과 같은 제원이다.

문조 태실의 중동석은 구형에 가까운 형상으로 중앙에는 만(卍)자 형상을 한 운문이 새겨져 있으며, 중동석의 상하로 연환문이 울룩하게 조각되어 있

57 『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1836), 「工匠秩」.



그림45-문조 태실의 귀부
[귀대석], 필자 촬영



그림46-문조 태실의
중동석, 필자 촬영



그림47-헌종 태실의
중동석, 1847년, 필자 촬영



그림48-문조 태실의
난간석주, 필자 촬영



그림49-문조 수릉의 난간석주,
1846년, 필자 촬영

다(그림46). 문조 가봉 태실의 문양은 같은 19세기에 제작한 헌종 태실 중동석에 비하여 문양이 중앙에 새겨져 있고, 형태가 일정하며 정돈된 모습이다(그림47). 문조 태실의 중동석은 1801년에 조성된 정조 태실처럼 사방으로 운문이 새겨져 있고 상하에 연환문이 있는 점에서 19세기 태실 석물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또한 개척석도 둥그스름하게 연잎이 덮여 있는 형상이 정조 태실과 유사성을 보인다.

문조 태실의 난간석은 현재 난간석주 6기, 동자석 1기, 축석 1기만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난간석주에서 특이한 사항이 보이는데, 1801년에 정조 태실

의 난간석주에서 중앙에 원을 처음으로 새겨 넣었던 것에 발전하여 문조 태실의 난간석주에는 원 안에 방위(方位)를 표시했다(그림48). 현재 문조 태실의 난간석에 새겨진 글자는 묘(卯), 유(酉), 우(牛), 자(子)와 건(乾), 손(巽)으로 이는 열두 방위 가운데 각각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건(乾), 손(巽)은 팔괘(八卦) 중 일부로 각각 북서와 남동의 방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근에 흩어져 있거나 훼손된 문조 태실의 두 기의 난간석주에는 각각 남서인 곤(坤)과 동북 간(艮)이라고 새겨졌을 것이다.

조선왕릉의 봉분 석물은 12각으로 1397년 신덕왕후 정릉부터 병풍석에 십이지를 부조로 조각하거나 15세기부터는 십이간지를 글자로 만석(滿石) 등에 새겨 넣었다. 그리고 팔간사괘(八干四卦)를 추가하여 24방위를 완성한 것은 18세기부터 시작되었고,⁵⁸ 태실 석물에서도 방위를 써 넣은 것은 19세기 문조 태실부터 관찰된다. 특히 능 난간석주에 음각으로 방위를 글자로 새기는 점은 17세기부터 있었지만 간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원형을 조각한 점은 1800년 정조 건릉, 1855년 문조 수릉, 1856년 순조 인릉 등 19세기에 조성된 능에서만 보인다(그림49). 이러한 왕실 미술의 흐름이 태실 석조물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태실 석조 미술에서도 동일한 시대성을 파악할 수 있다.

IV. 맺음말

조선의 왕과 모후를 이어 주던 태를 보관하는 태실은 삼남 지역에 설치되었고 태실의 주인공이 왕으로 등극한 후 왕의 태실이 설치된 지역은 현(縣)에서 군(郡)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조선왕실의 가봉 태실은 타국에서도 쉽게

58 전나나, 「조선왕릉 병풍석과 난간석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59~162쪽.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고려 이전에도 석물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독창적인 사상과 문화를 보여 주는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가봉 태실은 일제 강점기에 조직적으로 해체되었고, 지하에 묻어 두었던 태향아리와 태지석이 한곳으로 모아졌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왕실 태실의 석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했는데 원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원 부재와 신 부재가 섞인 상태로 복원되기도 했다.

왕실 태실의 용어는 도설과 함께 그려진 의궤를 토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특히 태실 난간석은 조선왕릉의 난간석과 유사성을 지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조선왕릉의 난간석주는 최상단의 원수부터 연꽃잎과 잎사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태실의 난간석주는 원수와 연잎으로 구성되어 좀 더 단순하다.

태종 태실 석물은 현재 해체되어 있지만 고려 왕릉 및 15세기 조선왕릉의 난간석주와 유사성이 있다. 성종 태실은 대체로 1471년에 조성된 석물로 구성되었으며, 가봉비 중 이수가 있는 비석은 1823년에 다시 세웠다. 예종 태실의 가봉비는 화려한 이수 조각이 돋보이는데, 유사한 시기에 조성한 왕실 가문의 묘비석과 비교가 되고, 중종 태실의 가봉비 역시 사대부 묘의 비석과 시대적 양식을 공유한다. 인종 태실은 1546년에 제작된 가봉비 외에 개침석 및 난간석은 공빈 김씨 성묘의 팔각 장명등, 난간석과 유사성을 보여 1680년 경에 보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명종 태실의 개침석도 명종 강릉의 장명등과 비슷한 형식을 갖추었다.

귀부와 이수를 갖춘 태실의 가봉비는 경기 지역에 위치한 사대부 묘의 신도비와 비교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에 태실을 조성할 때 경기 지역에서 활동한 경석수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의궤에 따르면, 태실 조성에 참여한 석수들은 대부분 태실이 위치한 지역 인근에서 유입되지만 감독 역할을 하는 경석수가 치석의 주요한 부분을 결정했기에 왕실 문화의 경향이 태

실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조선왕릉의 표석은 어보 인면에 새기는 글자를 쓰는 당대 최고의 서사관(書寫官)이 참여했던 데 비해 태실비에 글자를 쓰는 서표관(書標官)은 지방관에게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태실 석물의 제작은 경석수의 역할이 컸지만 조역의 감독관으로서 지역관의 비중도 컸다.

조선 후기 태실 가운데 정조 태실 석물에 문양을 화려하게 새긴 점이 독특한데, 조선왕실에서 다수 사용하는 칠보문을 태실의 중동석, 사방석, 상석, 난간석주 등에 새겼다. 정조 태실 조성에 참여한 석수 정유복은 정조 건릉의 조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조 건릉의 양식과 유사성을 보인다. 문조 태실은 복원의 관점으로 보면 위치와 구성에 아쉬운 점이 다수 나타나는데, 의뢰가 남아 있으므로 복원에 참고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 조성된 왕실의 태실 석물은 고려의 양식을 답습하면서 서서히 변화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조선왕릉의 석물 제작 경향을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조선왕실의 태실 석물을 조선왕릉처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태실 석물 중 개침석의 형태와 중동석의 문양, 난간석주의 모습 등에서 시대성을 보이기 때문에 능 석물과 비교하면 복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실 복원 시 관련된 제반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원 부재와 신 부재의 구분 및 체계적인 현황 보고서 등이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일정한 복원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한다면 조선 왕실 태실 석물이 지닌 문화유산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春官通考』.

李王職(編), 『胎封』.

『胎峯謄錄』.

崔恒, 『太虛亭文集』.

『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儀軌』, 1823.

『元子阿只氏藏胎儀軌』, 1809.

『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 1836.

『正宗大王健陵山陵都監儀軌』, 1800.

『正宗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 1801.

『追崇都監儀軌』, 1835.

『顯隆園園所都監儀軌』, 1789.

《每日申報》. 《皇城新聞》.

2. 논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편), 『仁宗胎室 發掘調査報告書』(경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영천: 영천시,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편), 『西三陵胎室』,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김문식, 「서삼릉 태실의 조성과 태실의 현황」, 윤진영·김호·이귀영·홍대환·김문식, 『조선왕실의 태실 의례와 장례 문화』,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대동문화재연구원(편), 『성주 태종·단종태실 학술(지표)조사 결과보고서』, 대구: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편), 『獻陵(元敬王后陵)解體實測報告』,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9.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편),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 서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 신병주, 「조선왕실의 출산과 태의 의미」, 국립고궁박물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편), 『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8.
- 심현용, 「고려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시론」, 『강원사학』 27, 2015, 1~26쪽.
-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편), 『(2022年度) 江原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寧越 正宗大王胎室 및 胎室碑』, 영월군: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2022.
- 윤진영, 「조선 후기 安胎儀禮의 개선과 정비」, 『조선시대사학보』 67, 2013, 391~428쪽.
- 장신, 「일제하 이왕직의 직제와 인사」, 『장서각』 35, 2016, 70~103쪽.
- 전나나, 「조선왕릉 병풍석과 난간석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최남선, 『조선상식: 풍속편』, 서울: 동명사, 1949.
- 한림대학교 박물관(편), 『寧越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춘천: 한림대학교박물관, 1995.
- 和田一郎, 「國有地の紛糾」, 『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8.

국문초록

조선왕실의 태실을 조성할 때에는 왕실에서는 석수를 파견하고 해당 지역의 석수와 공동으로 석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석물로 치장되어 있는 가봉 태실이 경기 지역에 있는 왕실의 능묘 석물과 양식적 유사성을 보이는 점도 제작자의 공통점에서 기인한다. 1401년에 제작된 태종 태실은 고려의 영향을 다수 받았으며, 아직 조선의 태실 석물의 원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었다. 인종과 명종 태실은 16~18세기에 걸쳐서 석물을 지속적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의 석물이 남아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도 지방관을 통하여 왕실에서 태실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정조 태실은 정조가 승하한 후에 조성되었다. 특히 정조 건릉을 조성했던 경석수(京石手)가 파견되어 왕릉에서 제작된 석물의 모습을 다수 반영했다. 문조 태실의 난간석주는 방위에 대한 관념이 심화되어 팔간(八干)을 새겨 넣은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태실 석물은 조선왕릉의 석물과 영향 관계를 볼 수 있으며 대체로 능에서 먼저 시도된 형태가 추후 태실 석물에 반영되었다.

투고일 2025. 3. 30.

심사일 2025. 5. 2.

게재 확정일 2025. 6. 4.

주제어(keywords) 태실(Taesil: royal placenta chamber), 난간석(stone railings), 표석(monumental stela), 안태(placenta burying), 의궤(Uigw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Joseon Taesil Stones

Jeon, Nana

The Joseon royal family's Taesils are not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but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However, the royal court dispatched masons and allowed them to collaborate on the stones. The stylistic similarity of the Taesil, which is decorated with stones, to royal tombstones is also due to the commonality of the makers. King Taejong Taesil, made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was heavily influenced by Goryeo, and a prototype for Joseon Taesil stones had not yet been established. King Injong and Myeongjong Taesils were continuously added from the 16th to the 18th centuries; therefore, they contained stones from different periods. This shows that, eve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e royal court actively managed Taesil through local officials. The King Jeongjo Taesil, which represents the late Joseon Dynasty, was built after King Jeongjo's ascension. Masons from the capital, who constructed Jeongjo's tomb, were dispatched, and many of the stones reflected the appearance of the royal tomb. The carving of bearings on the railing stones of King Munjo Taesil shows that the notion of direction was reinforced at that time. In general, the forms first tried in the mausoleum were later reflected in the stones of the royal tombs.